이력서



장소영 1993년 (30세/만 29세) | 여

- 010-3503-9318

& -

ᠬᠬ (08840) 서울 관악구 서림길

학력사항	경력사항	희망연봉	희망근무지/근무형태	포트폴리오
대학교(2,3년) 졸업	경력 5년 11개월	회사내규에 따름	서울전체 정규직	https://soyoung-portfolio.netli fy

학력 최종학력 | 대학교 <mark>2,3년</mark>졸업

재학기간	구분	학교명(소재지)	전공	학점
2012.04 ~ 2015.03	졸업	문화복장학원(Bunka Fashion College)대학 (아시아 중동)	슈즈 디자인과	-
2008.03 ~ 2011.02	졸업	중앙여자고등학교	문과계열	-

경력 총 5년 11개월 **예외근**뮈일본 3년 2개월

근무기간	회사명	부서/직급/직책	지역	연봉
2019.04 ~ 2021.12 (2년 9개월)	자라리테일코리아	사원 / 2년차	-	-
	(담당업무) 고객 응대 및 판매 스탁 및 재고 관리			
2018.01 ~ 2018.05 (5개월)	thorough brace	사원 (팀원)	일본	-
	담당업무 기획,영업, 무역, 웹디자인			
2015.04 ~ 2017.12 (2년 9개월)	TAKEYA	사원 (팀원) / 2년차	일본	-
	담당업무 매장관리, 판매, 컴퓨터 작업(일러스트,포토샵)			

포트폴리오/기타문서

파일 구분	파일명	
포트폴리오	https://soyoung-portfolio.netlify.app/	

[장소영 자기소개서]

[내가 개발자를 선택한 이유]

근무하던 회사에서 편집 디자인의 업무를 맡게 되어 포스터 작업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편집 디자인의 업무를 하다 보니 화면에 버튼을 추가해서 클릭할 수 있게 한다던가, 편집한 페이지 화면들을 이용해서 웹 사이트나 애플리케이션처럼 만들 수는 없는지에 대해 고민이 생겨났습니다. 좀 더 즉각적인 반응과 상호작용이 가능한 작업이 하고 싶어져 관련 사항을 알아보던 중 웹 개발이라는 것을 접하였고 내가 원하는 작업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보다 동적이고 사용자와 직접적으로 소통할 수 있다는 점이 흥미로워서 개발을 공부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패션 스쿨을 다닐 때부터 종종 티셔츠나, 지갑 등 제가 제작한 제품을 만들어 주변에 나눠주곤 했습니다. 내가 만든 제품을 잘 사용해주는 주변의 반응에 뿌듯함과 성취감이 계속해서 저를 움직이는 원동력이 되어 주었습니다. 사용자에게 직접 맞닿아 있는 영역인 프론트엔드의 매력과, 원래 관심있던 분야인 디자인과의 접점이 많다고 생각되어 프론트엔드 직무를 선택했습니다. 내가 개발한 서비스가 많은 사람들이 유용하게 사용하길 원하고,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에 발맞춰 그 변화를 이끄는데 나의 기술과 서비스가 기여되길 바랍니다. 이것이 제가 프론트엔드 개발자를 희망하게 된 이유입니다.

[다른 사람과 구별되는 나만의 강점]

첫 번째, 꾸준함입니다.

저는 7년 전부터 일상 블로그 운영과 다이어리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작심삼일로 시작했더라도 그 작심삼일이 모이고 모여 한 달, 일 년이 지나면 그동 안 쌓인 기록들의 가치가 크게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처음 개발 공부를 시작한 때에도 기술 블로그와 깃허브 계정을 만들어 공부한 내용을 날마다 정 리해 오고 있습니다. 꾸준하게 해나가는 습관으로부터 쉽게 포기하지 않는 힘을 얻습니다.

두 번째, 트렌드에 빨리 반응합니다.

패션업계 경험을 토대로 사용자들이 원하는 게 무엇인지 업계에서 현재 유행하는 것은 무엇인지 빠른 시장조사가 가능하며, 변화하는 트렌드를 빠르게 이해하고 이를 업무에 유연하게 반영할 수 있습니다. 빠르게 변화하는 프론트엔드 업무에 있어서 프론트 분야의 기본적인 이해뿐만 아니라 트렌드가 생긴 흐름과 이유에 집중하여 본질을 파악하고 장기적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능력을 키워 발 빠르게 대처해 나갈 자신이 있습니다.

[성격의 장점과 단점]

저의 장점은 빠른 상황 판단과 오픈 커뮤니케이션입니다.

SPA 브랜드에서 첫 근무를 할 당시에 해야 할 업무는 많고 시간은 부족하여 초조해하며 우왕좌왕 업무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저를 발견한 동료가 즉각적인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업무의 타임 타겟 및 우선순위를 저와 함께 정하자고 권했습니다. 동료의 권유대로 업무 세팅을 다시 조율했더니 막혀있던 업무가 일사천리로 진행되었습니다. 그때 터득한 커뮤니케이션 방식을 바탕으로 그 후의 저의 근무 생활은 확연히 달라졌습니다. 저는 100% 완벽한 사람은 아닙니다. 하지만 팀 동료들과 소통하며 내가 부족한 부분, 내가 남들보다 자신 있는 부분은 서로 보완해가며 근무에 임하고자 합니다. 이 세상에 혼자서만 일하는 사람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으로서 100을 해내기보다는 동료들과 협업하여 120을 만들어 내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저의 단점은 급한 성격입니다.

빨리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성격상 눈앞의 문제를 빨리 해결하고, 다음 스테이지로 넘어가야 직성이 풀리곤 했습니다. 하지만 자주 깜빡하고 놓치는 일이 몇 번 일어나고 나서는 이에 맞는 대안 계획을 세웠습니다. 하루의 계획 짜기입니다. 그날에 반드시 해야 하는 일들과 그날의 일과를 정해놓고 'ToDoList 어플리케이션'과 'Notion 작업리스트'를 활용하여 중요도에 맞게 시간 분배를 하고, 전체적인 흐름을 파악하고 나니 이전처럼 급하게 서두르는 일은 대폭 줄었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좋은 코드란]

작성자 본인이 나중에 다시 봐도 한눈에 이해할 수 있고, 다른 개발자가 봤을 때도 이해하기 쉽도록 주석으로 코멘트가 잘 정리되어 있고, 전체적으로 코드에 통일감이 있으며 번잡하지 않은 코드.

[최근 관심 있는 개발 분야 소개]

nextjs - 최근 공부하기 시작한 'nextjs' 입니다. 앱에 있는 페이지들이 미리 렌더링 된다는 것이 획기적이라고 느꼈고, 유저들의 네트워크 연결 속도가 느리거나 자바스크립트가 비활성화 되어있더라도 페이지가 로딩 되는 동안 유저들은 빈 페이지가 아니라 미리 렌더링 된 화면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이 점에서 얼마나 사용자의 편의를 위하고 있는지 와 닿았고 해당 분야에 대해 더 깊이 공부하고 싶어졌습니다.